

“기초의회 폐지” “정당공천 폐지”

새누리·민주·안신당 3당 3색 지방선거 개혁안

새정추, 여성명부제 ‘찬성’·정당기호 순위 ‘반대’

6·4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앞 다퉈 지방선거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제각각이어서 합의의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최근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단체장이 최장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다음 선거를 위해 각종 전사성 사업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이 파탄 지경에 빠지는 폐단을 막는 동시에 유명무실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살리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구상이다.

또 현행대로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유지하고, 대신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를 골자로 하는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밀실공천이나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 등을 막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개혁안의 핵심으로 내놓고 있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 모두 대선공약이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이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공언한 정치혁신 약속”이라며 “세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지와 신뢰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 측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송호창 소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이 됐으며,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다”면서 폐지 필요

성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새정추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이 “공천을 대책 없이 폐지하자 하는 것은 명백히 위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되는 내용을 공약했던 것으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은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여성 정치 참여 기회 축소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새정추는 이날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고 제안했으며, 민주당도 정당공천 폐지가 실현되는 대로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보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양측은 정당기호 순위제도를 두고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추는 현행 순위제도에 대해 “제1당이나 유력 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임명제로 하자” “직선제 보완을”

국회 정개특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교육의원총회·진보단체·교총도 엇갈린 주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백가쟁명식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선거제도와 임명제 중 어떤 것이 나올지, 또 선거제를 유지한다면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경우 새누리당은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되돌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직선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을 일부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맞서고 있다.

또 교원단체의 경우,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에서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개정하면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진보 교육단체인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도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는 교육감 선거에 정

당이 직접적·결정적으로 개입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현 직선제를 옹호하고 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실질적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려면 제한적 직선제나 임명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7일 국회에서 개최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선거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는 질병으로 치면 아주 중병에 걸린 상태이고,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라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양욱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려면 학부보·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가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

제’나 ‘임명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대 홍성걸 교수는 “선거제로 인해 가장 비정치적이어야 할 분야가 정치적으로 변했다”며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을 수 없는 러닝메이트나 공동등록제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전 세계적 추세인 임명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금권선거 등 부작용을 줄여가는 과정이 향후 직선제를 유지하며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임명제와 관련, “정당공천을 받고 나온 시·도지사 후보자에 의해 교육감이 임명될 경우 자주성,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나”고 반문했다.

민주당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나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직선제를 옹호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의료영리화 추진 안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한노위, 국토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면 전면적 반대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원내대표, 장 정책위의장, 한명숙 의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한노위, 국토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면 전면적 반대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원내대표, 장 정책위의장, 한명숙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인사·예산 호남 푸대접 심각”

박지원 민주 전 원내대표 ‘쓴소리’…당 지도부도 신경 안써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정부에서 예산과 인사부문 호남 푸대접이 심각하다”며 “그런데도 당 핵심 지도부에 호남의원이 없어 신경을 쓰지 않으니 호남지역 의원들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토위 증액 예산 4397억원 중 호남에 2209억원(50.2%)이 내려간 반면 호남에는 13%인 576억원만 내려갔다. 특히 대구·경북에 1263억원, 부산·경남·울산에 94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지만 전북에 420억원, 광주·전남에는 156억원만 증액되는 등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박 전 원내대표는 또 “지난 검사장 인사에서 호남 출신이 1명만 승진했는데 3명이 웃을 벗겨 댔 결국 호남 검사장 2명이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호남 소외가 심각함에도 호남지역 의원들이 나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높은 호남지지도에 대해 “광주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니 전남도 곡성·진도·신안만 빼고 모두 넘어갔다”며 “지금은 ‘민주당 너희는 안 된다’는 분위기이고 ‘안철수’에게는 미덥지 않지만 새정치를 표방하니까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모른다”며



“안철수 신당이 이분위기를 끌고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호남 공약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안철수 신당”은 야권이 어려운 영남에서 이겨서

와야 하는데 야권에 가장 쉬운 호남에서 경쟁함에 따라 야권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남도지사 차출론과 관련 “내 거취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 민주당과 호남을 살리는데 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與, 기초의회 폐지는 헌법유린…즉각 중단하라”

지방분권운동 지역본부 등 촉구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와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 촉구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7일 “새누리당은 기초의회를 폐지하려는 헌법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

하고,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광역단체장 2선 연임 제한, 정당공천제 폐지 아닌 개선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초의회 폐지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사항이었는데 왜 이제와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뺀채 치러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국회의원과 중앙정당의 이익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경매전문											
★전대상대 1분 등기완료, 공실없음 월수익 420만원 500수익 최고위치 전대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6억3천 (보증금 3천, 용 1억) ★전대용봉지구모아미래도APT코너 신축 4층 룠 19개(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전대정문 원룸 룸 15개 월수익 500,매가 6억3 전대예술대 2분 코너앞 룸 13개(4층 고급주택 40평 1개) 매가 7억8천 즉시입주가능 최고위치 월수익 455만원(4층주택 사용가) ★수원지구상가 <table border="1"> <tr> <td>1층매매(17.5평) 3억5천</td> <td>1층임대(18평) 보2천 월110만</td> </tr> <tr> <td>3층매매(85평) 3억2천</td> <td>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td> </tr> <tr> <td>모아엘가 상가 3층</td> <td></td> </tr> <tr> <td>3층매매(62평) 2억8천</td> <td>3층임대(62평) 보5천 월150만</td> </tr> <tr> <td>세계로 병원 대로면</td> <td>학원,병원, 사무실 기타적합</td> </tr> </table> 쌍촌동운천역1분 원룸형 주택 11평 매3500/13평 매4500		1층매매(17.5평) 3억5천	1층임대(18평) 보2천 월110만	3층매매(85평) 3억2천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모아엘가 상가 3층		3층매매(62평) 2억8천	3층임대(62평) 보5천 월150만	세계로 병원 대로면	학원,병원, 사무실 기타적합	경매 투자 하실 분! (공동투자가능) (상가, APT, 원룸, 토지, 근생, 기타) 권리분석·입찰 매매·임대·자금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 해드립니다. ◎경매 직원 구함◎ 가족처럼 함께 하실 분	
1층매매(17.5평) 3억5천	1층임대(18평) 보2천 월110만												
3층매매(85평) 3억2천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모아엘가 상가 3층													
3층매매(62평) 2억8천	3층임대(62평) 보5천 월150만												
세계로 병원 대로면	학원,병원, 사무실 기타적합												
신한공인중개사 ☎010-6670-9800		주)대신경매 ☎062-527-7600											

2014년도 제2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4년 2월 17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100명) 오전 9:00 ~ 1:20
- 야간반(100명) 오후 6:00 ~ 10:20

제출서류

-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3년 12월 2일(월) ~ 2014년 1월 10일(금)
-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4년 1월 10일(금)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4년 1월 13일(월) 오전 10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TEL 062)605-1112, 1023 FAX 062)572-0264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육교사는 어떤일과 가정어린아이를

★ 보육교사는 어떤일과 가정어린아이를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

(1년액 1,705,000원:2013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이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노크하십시오.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보육교사교육원에서는 위탁 선정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 3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4주간의 현장실습(10월경)이

가능할 분야여야 함)